

은혜와 진리소식

2025년 4월 13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925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주님은 저를 무척 사랑하시고
언제나 저와 함께하여 주시며,
저의 살아갈 이유가 되시는
참 좋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황보 선희-

저는 1987년 초여름 신혼생활을 시작한지 3년이 되었을 때 남편의 직장생활로 인해 서울에서 경기도 군포의 산본으로 이사하였습니다. 그 해 여름, 젊은 구역장님의 친절하고 끈질긴 전도로 은혜와진리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집안에 가톨릭 성직자 두 분이 계시고 가톨릭 재단이 운영하는 여중과 여고를 나왔지만 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많은 편이었지만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등 기독교의 교리와 가르침이 이해하기 어려웠고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랑비에 옷이 젖고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이 어느새 크게 자라듯이,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의 역사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경외하며 섬기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소리 높여 주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릅니다.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아들이 17살이 되었을 때 뒤늦게 아들에게 청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크나큰 마음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라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하면서 잠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의심이 생기고 마음의 문이 닫히려 할 때는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러다가 그 속상하고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신 사랑의 손을 굳게 붙들

었습니다. 그러한 시련의 시간이 지나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졌습니다.

저에게 원인을 모르는 부인과 질병이 생겨 고통을 주더니 대수술까지 받았어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섬기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니 염려할 것 없다고 생각하고, 할 동할 수 있을 때 좀 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생각으로 미화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모르게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귀가 얇은 남편이 다른 사람 말만 듣고 동업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벌였지만 모두 실패하고 가정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좋은 아파트와 승용차로 포장되었으나 실제로는 ‘빚 좋은 개살구’여서 삶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라할 만큼은 아니어도 저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구역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년 전에, 저에게 아픈 손가락인 아들 그러나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한 아들의 직장생활을 위해 아들과 함께 경기도 오산에 와서 생활하면서 동탄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진정될 무렵, 제가 오래 앉아있거나 운동을 하면 꼬리뼈 주위에서 약간의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권사 임명 절차가 진행중일 때에 칼슘 검사를 받았는데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골수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직분을 받고 이어서 항암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병명을 알았을 때는 황당하고 두려웠습니다. 저야 분향의 주님이 계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더없이 감사한 일이지만, 세상에 남아서 살아가야 하는 아들과 또한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혹시라도 실족할지 모르는 딸과 남편을 생각하면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라파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투병을 시작하였습니다. 중요한 검사를 받을 때와 보호자가 꼭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 혼자 병원을 오가며 항암치료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채혈 검사와 MRI 검사, 2번의 pet-ct(양전자방출/컴퓨터 단층촬영) 검사, 4번의 골수 검사를 받고, 24번의 항암 주사를 맞고 6개월 동안 항암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무균실에서 21일간 있으면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습니다.

길고 힘든 투병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에서 저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저와 함께하셔서 저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가능했던 분투의

시간이었습니다. 4명이 함께 치료를 받는 무균실에서 간호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책을 소독하여 가지고 들어와 침대 머리맡에 두고 수시로 성경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작은 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통증과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환자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치료가 끝나 퇴원을 하고 하루는 집에서 혼자 점심을 먹으려는데 갑자기 강한 성령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저는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과 지옥의 환상을 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의 심령에 모든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하여졌습니다. 걱정이랄까, 바람이랄까, 아들에 대한 저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아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마치 깊고 잔잔한 물위를 편안하게, 자유롭게 거니는 것과 같은 마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이번에 겪은 고난이 저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습니다. ‘나의 작은 믿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섬리하여 주시고, 들었던 암보험을 통해 치료비용 등을 지불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통원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동안에도 홀로 외롭지 않도록 성령님이 늘 저와 동행하시며 위로와 힘을 주셨습니다. 지금 유지요법인 항암약을 복용해야 하지만 부작용으로 중단한 상태인데, 약을 먹지 않고도 혈액 검사와 골수 검사에서 모두 암세포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늘 감사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마가복음 11:22~24)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찬송가 89장) 이 성경말씀과 찬송가는 다른 여러 성경구절과 찬송가와 함께 제가 투병 중에 그리고 지금도 수시로 암송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돌립니다.



은혜와 진리교회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수원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T. 031-225-3731, 234-3732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광명 : 광명시 소하로 109번길 13-18 T. 02-894-3731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다길 5 T. 02-2632-3731
산본 :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 031-906-3731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 6 (인창동) T. 031-567-3731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양주 : 양주시 평화로 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 12번길 39-11(관동동) T. 055-312-3731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 48 (운서동) T. 032-751-3731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충남로 41번길 30 T. 042-471-3736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마루들길 168 T. 031-763-3720
남양 : 화성시 시청로 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 1길 26-71 T. 031-8015-3731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420 (보람동) T. 044-862-3732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삼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 054-772-7867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병현동길 39번길 21-18 T. 041-534-3731~2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 2 (쌍계리) T. 063-351-7518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

구역공과

제2권 (제9단원 : 성도의 바람직한 생활자세)

(제44과) 감사 생활

- 본문 : 골로새서 3:15-17

• 요절 :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골로새서 3:15)

• 찬송 : 399장(새찬송가 546장), 466장(새찬송가 408장)

주 안에서 거듭난 새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그 생활 또한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주님은 그런 성도의 마음을 평강으로 채우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것에 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8)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 모든 것을 감사할 조건으로 삼고 역경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더욱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힘과 용기를 얻어 절망과 곤경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 전도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였지만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었음을 이렇게 간증하였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8, 39)

사도 바울이 누렸던 믿음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승리를 실제 생활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3.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불신 영혼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솜씨를 의지해서는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감동적인 필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행 16:13~14)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1.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믿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권능으로 기적과 표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강박한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옹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마 11:25~27).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깨달음이 저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계시를 깨닫게 해 주신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인간에게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실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갈 4:9).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정성을 다해 교회로 인도하고 구역예배에 참석하게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밭에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일 뿐 씨가 트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고전 3:5~7).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위해 상급을 예비해 놓으시고 마침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모든 상급을 받아 누리게 하셨으니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창조주를 찾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노력은 헛수고요, 심판과 책망을 받게 되는 허망한 행동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마음 눈을 밝혀 주셔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이신 구원의 계시를 깨달아 믿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로 인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은 성도들 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 생활에 힘쓰는 성도들에게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믿게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고 또한 항상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꾼 삼으셔서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 갈수록 감사 생활의 깊이를 더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 항상 승리하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고전 15:57). 예수님은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워 이기도록 격려하시며 도와주십니다(딤후 6:12).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고 하신 약속은 믿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신 승리의 약속입니다. 수많은 성도가 이 약속을 근거로